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3, 671 - 689

##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 효과<sup>†</sup>

이 회 숙<sup>‡</sup>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서 보살핌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 469명(남자 242명, 여자 227명)이며, 성인애착척도, 보살핌척도, 성적친밀감척도, 결혼만족척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성인애착(애착회피/애착불안), 보살핌, 성적 친밀감, 결혼만족 간에는 대부분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결혼만족에 부적인 직접 효과가 있었다. 애착회피는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를 통해 결혼만족에 대해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애착불안은 성적 친밀감의 매개를 통해 결혼만족에 간접효과를 보였으나 보살핌을 통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결혼만족에 대한 간접효과는 애착회피가 결혼만족에 대하여 갖는 직접효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이 결혼만족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보살핌과 성적친밀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성인애착, 보살핌, 성적친밀감, 결혼만족

<sup>†</sup> 본 논문은 이회숙의 2008년도 2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회숙, (142-720) 서울시 강북구 미아5동 동부센트레빌 A 107동 1303호,  
Tel : 02-984-7965, E-mail :21barama@dreamwiz.com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는 일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정서적, 성적 친밀감을 교류하는 장기적인 유대관계이다. 특히 개인적인 성취와 자유가 부각되고 동시에 부부의 사랑과 친밀감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부부관계는 안정과 변화를 함께 추구하면서 이런 모순적인 욕구가 오히려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이혼율의 급증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해 주며 부부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12만 5032쌍, 하루 평균 342쌍이 이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은 이른바 ‘황혼이혼’의 증가 추세로 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이혼 자체가 부부갈등 해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사라진 것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혼은 당사자들의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 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막대한 사회 간접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친밀성에 기초한 가족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부부 간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고 관계 안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부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혼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은 이혼의 가장 큰 예측 요인 중 하나가 결혼 불만족이라는 점을 일관성있게 확인하였다(Gottman & Levenson, 2000). 결혼 불만족이란 배우자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감정으로 심리적 안녕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전통적인 규범이나 외부적 강제력이 줄어든 현대의 결혼생활에서는 개인의 만족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 관계에 빠지고 쉽게 결혼관계를 종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결혼에 대한 불만족은 우울 등 심리적 문제(권정혜, 2000; 박경, 2002; 박경순, 1997)나 부부폭력(이종선, 권정혜, 2002)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에 이르게 하는 요인과 특성들을 밝히려는 연구는 부부 각자의 개인의 삶의 질 뿐 만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부부관계를 Bowlby의 애착이론 관점에서 살펴 본 연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대 배우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안식처와 안전기지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 주는가에 따라 결혼 만족이나 관계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Collins & Feeney, 2000). 즉, 남편이나 아내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근접하여 보살피고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 이때 부부가 서로에게 안전기지나 안식처의 역할을 상호 호혜적으로 제공할 때 애착의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관계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6; Fuller & Fincham, 1995; Kirkpatrick & Davis, 1994).

Shaver와 Hazan(1988)은 부부 두 사람의 사랑이나 유대감이 Bowlby(1982)가 주장한 애착(attachment), 보살핌(caregiving), 성(sexuality)의 세 가지 타고난 행동체계 안에서 개념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 행동체계는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일차적인 기능을 하지

만-보호와 지지를 추구하는 애착, 지지와 보호의 보살핌, 성적 기능-한 체계의 행동 특성은 또 다른 체계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성적 혹은 보살핌 행동이 실제로는 근접성 추구, 보호, 승인, 또는 친밀감 등 애착과 관련된 욕구를 나타내는 행동일 수 있다 (Davis, Shaver, & Vernon, 2004). 그러므로 상호 만족스러운 애정적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과 파트너의 애착, 보살핌, 성적 수용능력 모두를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Mikulincer, 2006).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들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연구들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등 성격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 성 만족 같은 관계적 측면의 변인들과 결혼만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왔다. 이 연구들은 애착 등의 성격적 측면, 보살핌과 유사한 사회적 지지 측면, 성 만족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여 결혼만족을 예측하려 하였으나, 이들 모두를 통합하여 결혼만족을 살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행동 체계적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성인애착 이론은 이들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그동안 성인애착 연구는 세 가지 행동체계 중 애착체계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애착척도 개발 (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nnan, Clark & Shaver, 1998;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과 더불어 성인애착의 유형별 특성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경험과 질을 얼마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Brennan & Shaver, 1995; Collins & Read, 1990; Feeney, 1994, 1996; Kobak & Hazan, 1991). 이러

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부관계에서 부부 각자의 애착의 안정성은 부부관계 만족에 필수적인 개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상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 둘 사이의 연결기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한편, 애착이론에서의 보살핌체계는 신뢰감과 안정감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자신의 애착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면서 보살핌을 배우며, 보살핌 제공에 있어서의 신념이나 전략을 발달시킨다 (Collins & Feeney, 2000; Kuncz & Shaver, 1994). 부부 간의 지지와 적절한 보살핌은 결혼 만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사회적 지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어 왔다 (장춘미, 2001; Cutrona, 1996; Pasch & Bradbury, 1998). Kotler (1986)는 부부의 상호 보살핌이 성격이나 건강 그리고 환경적 요소보다 결혼만족을 더 강하게 예측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애착 행동 체계는 개인적으로 취약하거나 힘들 때 더욱 활성화된다. 이때 배우자가 보여주는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는 개인의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비난, 질책, 통제, 무시, 무관심 등의 부정적 행동은 거부되는 느낌과 함께 심리적인 상처로 남아 관계에 불만족하고 갈등이 고조되기 쉽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부는 상호 애착 대상으로 심리적인 접근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지지적인 상호작용인 보살핌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보다 구체적인 관계 역동에 대한 이해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결혼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는데 필요하다 하

졌다(Kunce & Shaver, 1994; Feeney, 1996).

뿐만 아니라 성행동 역시, 애착 관련 동기 즉 친밀감이나 안도감이 필요할 때 활성화 된다(Davis, Shaver & Vernon, 2004). 그러므로 부부 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신체접촉과 성생활은 보살핌과 함께 개인의 애착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감과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충만하고 건강한 성적 친밀감은 연인과 부부들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성적 친밀감과 성 만족은 관계 만족과 안정성의 예언 변인이라는 점이 꾸준히 확인되어왔다(조지은, 2006; Berg, 2000; Fraley & Shaver, 2000; Massey, 1999; Schnarch, 1997; Schachner & Shaver, 2004). 특히, Schnarch(1997)는 성적 교류를 통해 깊은 수준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잘 기능하는 성적 관계는 부부 갈등과 문제를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성적 친밀감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많은 부부관계 이론이나 경험적 연구들(Cutrona, 1996; Massey, 1999; Schnarch, 1997)에서 친밀감을 결혼만족과 관계 유지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보았다. 특히 Gottman(2000)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혼 예방, 부부관계 증진에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정서적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강조하는 성인애착 이론적 관점은 유대감의 핵심적인 행동체계로서의 보살핌 체계와 성적 체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친밀감과 사랑에 큰 비중을 두는 현대의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유용하다고 본다.

한편, 부부관계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감정표현과 의사소통(Feeney, 1994, 1999), 심리적 불편감과 사회적 지지(Meyer & Landsberger, 2002) 등의 매개변인을 사용하여 애착과 결혼만족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매개변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동기부터 형성된 애착이 내적 작동모형을 통해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발달하면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담과 같은 개입을 통해 단시일 내에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Mallinckrodt, 2000). 따라서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이해하고 애착이 불안정한 개인들의 결혼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과정적인 측면들을 탐색하여 관련 변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성인애착 관점에서 부부 유대감을 설명한 Hazan과 Shaver(1994)의 성인 유대관계 모델(adult pair-bond relationships model)을 적용하여 애착이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을 통해서 결혼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직·간접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성인애착은 비록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경험을 측정하지만 신념이나 태도를 구성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부부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중요 변인인 보살핌과 성적친밀감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방 법

### 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로 이웃, 학교 평생 교육원, 회사 등을 통하여 임의표집 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거나 문항이 누락된 7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469부(남자 242명, 여자 22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1.8세(표준편차=7.36세)였으며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77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6.2%), 50대(17.3%) 순이었다. 학력분포는 대졸이 239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28.4%), 대학원졸(18.3%), 순이었다. 결혼기간은 6년에서 10년이 97명(20.7%), 11년에서 15년이 97명(20.7%)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 84명(17.9%)과 16년에서 20년이 77명(16.4%)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녀 수는 2명이 306명(65.2%)으로 가장 많았고, 1명(22.8%), 3명(6%) 순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성인 애착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 ECRS).** 성인의 낭만적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Brennan과 Clark, Shaver(1998)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ECRS를 김광은과 이위갑(2005)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기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와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7(매우 일치한다)까지로 각 질문에 선택하게 되어있다. 김광은 등(2005)은 이 척도가 한국에서도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두 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들을 각각 회피와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응답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8점에서부터 126까지이다. 총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애착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와 불안의 각 차원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 회피요인의 문항 내적합치도는 .94, 불안요인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91로 보고되었으며, 김광은 등(2005)의 연구에서 회피와 불안 요인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두 요인 모두 .84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회피요인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87, 불안요인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결혼만족척도(K-MSI).** 권정혜와 채규만(1998)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는 임상심리학자인 Snyder(1979)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를 기초로 한국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결혼만족에 중요한 측면인 부부관계 안에서 공격행동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와 우리나라의 결혼생활에서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를 추가하여 결혼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14개의 소 척도로 총 1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전반적 불만족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원본에서는 예/아니오의 2점 척도 설문이었지만, 변인의 변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가능한 응답범위는 22점에서 110점 사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 중 10개의 부정 진술된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95이었다.

**보살핌 척도(Caregiving Questionnaire).**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애착, 보살핌, 성이라는 Hazan과 Shaver(1987)의 주장에 따라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살핌을 측정하기 위하여 Kunce와 Shaver(1994)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번역은 우선 연구자가 하였으며 번역된 문항을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자가 다시 영어로 역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제 2의 이중 언어자에게 의뢰하여 원 문항과 역 번역 문항의 동등성을 검증 받았다. Kunce와 Shaver는 아동기 애착관계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살핌과 관계된 요소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60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4요인 8개의 문항으로 최종 32문항을 만들어서 각각의 하위요인을 근접추구, 민감성, 협동, 강박적 보살핌으로 명명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83, .83, .87, .80 이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1(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부터 6(매우 일치한다)까지 6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위요인에는 긍정 4문항, 부정 4문항씩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역채점되는 16개의 부정 진술된 문항들이 있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79, .68, .76, .64였다.

**성적 친밀감 척도(Sexual intimacy scale).** 이 척도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 파트너와의 성 경험에 관한 개인의 지각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 Massey(1999)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Massey는 성적 친밀감이란 매우 소중한 사람과 애정, 신뢰, 즐거움으로 충만한 성 행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30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단일차원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항상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2명의 이중 언어자와 협의한 후 1인의 상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번역된 성적 친밀감 척도가 다른 문화권인 한국에서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분석을 통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살폈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내적 합치도를 구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95였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1.5와 AMOS 5.0을 사용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애착불안, 애착회피,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보살핌, 성적 친밀감과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결혼만족의 구성개념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출된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애착불안, 애착회피,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보살핌, 성적 친밀감과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결혼만족 간의 구조관계를 가정한 두 가지 모형 중 어떤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하고, 간

명한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 결 과

###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선택한 구인들에 대한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

표 1.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Z 점수	표준화 계수
애착회피				
회피1	1.00			0.83
회피2	0.87	0.04	20.11	0.80***
회피3	0.81	0.04	22.49	0.86***
회피4	0.76	0.04	20.03	0.80***
애착불안				
불안1	1.00			0.82
불안2	0.89	0.06	14.18	0.68***
불안3	0.76	0.05	15.75	0.76***
불안4	0.76	0.05	14.18	0.68***
보살핌				
문제해결	1.00			0.65
협동성	0.75	0.06	11.95	0.65***
근접추구	1.29	0.09	14.28	0.84***
민감성	0.66	0.06	11.02	0.59***
성적친밀감				
성친밀감1	1.00			0.90
성친밀감2	1.08	0.03	32.43	0.92***
성친밀감3	0.99	0.03	30.85	0.89***
성친밀감4	0.99	0.03	29.73	0.90***
결혼만족				
결혼만족1	1.00			0.94
결혼만족2	0.96	0.03	33.52	0.90***
결혼만족3	0.84	0.02	38.46	0.93***
결혼만족4	0.88	0.03	33.58	0.90***

주. N = 469.

\*\*\*  $p < .001$

였다,  $\chi^2(160, N = 469) = 554.13, p < .001, CFI = .95, TLI = .94, RMSEA = .073$ . 전체 사례 수가 큰 것을 고려할 때, 표집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 TLI, RMSEA는 전반적으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구해진 비표준화된 요인계수, 표준오차, 및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p < .001$ )(단, 1로 고정된 요인계수는 제외). 이는 모든 잠재변인들이 각각의 측정변인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변인 간의 상관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

이,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애착회피, 애착불안,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보살핌, 성적친밀감,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결혼만족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완전 매개 및 부분 매개모형의 검증

연구에서 수립된 모형의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모형인 완전 매개모형과 경쟁모형인 부분 매개모형 검증에 앞서 대안모형의 하나인 애착회피, 애착불안, 보살핌, 성적친밀감 각각이 독립적

표 2. 측정모형 상의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혼만족	애착회피	애착불안	보살핌	성적친밀감
결혼만족					
애착회피					
애착불안					
보살핌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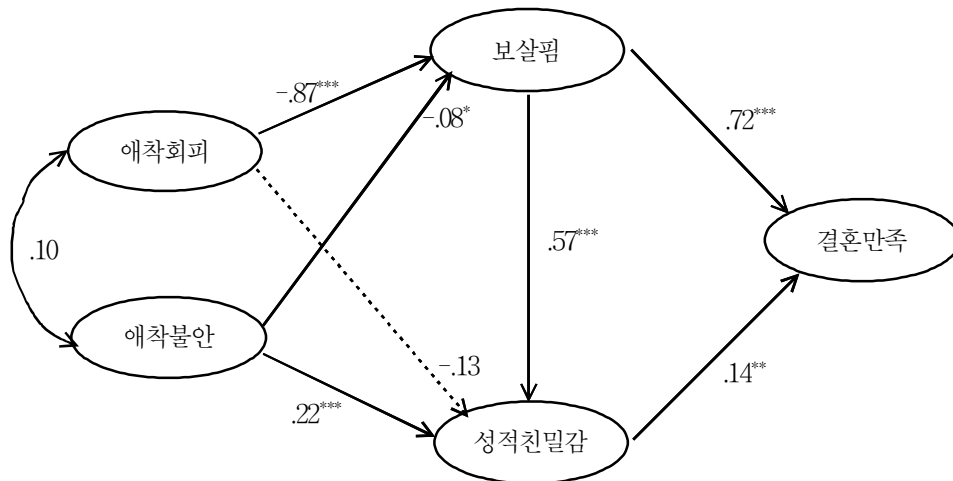


그림 1. 완전 매개모형



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단순효과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단순효과 모형의 검증 결과는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다,  $\chi^2(166, N = 469) = 1071.27$ , CFI = .86, TLI = .87, RMSEA = .107.

반면에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직접효과 경로를 제거하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매개하여 종속변인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를 포함하는 간접효과 모형 즉, 그림 1과 같은 완전 매개모형의 결과는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  $\chi^2(162, N = 469) = 612.95$ ,  $p < .001$ , CFI = .94, TLI = .93, RMSEA = .077. 전체 사례수가 큰 것을 고려할 때, 표집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 TLI, RMSEA는 전반적으로 이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완전 매개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보살핌이 낮았고,  $\beta = -.87$ ,  $p < .001$ , 성적 친밀감은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 = -.13$ . 그리고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성적 친밀감이 높았고,  $\beta = .22$ ,  $p < .001$ , 보살핌이 낮았다,  $\beta =$

$-.08$ ,  $p < .05$ . 보살핌이 높을수록 성적 친밀감이 높았고,  $\beta = .57$ ,  $p < .001$ , 결혼만족이 높았다,  $\beta = .72$ ,  $p < .001$ . 성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았다,  $\beta = .14$ ,  $p < .01$ .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보살핌의 변량의 78%를 설명하였다.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성적 친밀감의 변량을 49% 설명하였다.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은 결혼만족의 변량 중 67%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직접효과 경로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매개하여 종속변인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 모두를 포함하는 직접 및 간접효과 모형 즉, 그림 2와 같은 부분 매개모형이 자료에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부분 매개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한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  $\chi^2(160, N = 469) = 554.13$ ,  $p < .001$ , CFI = .95, TLI = .94, RMSEA = .073. 전체 사례수가 큰 것을 고려할 때, 표집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 TLI, RMSEA는 전반적으로 이 모델이 자료에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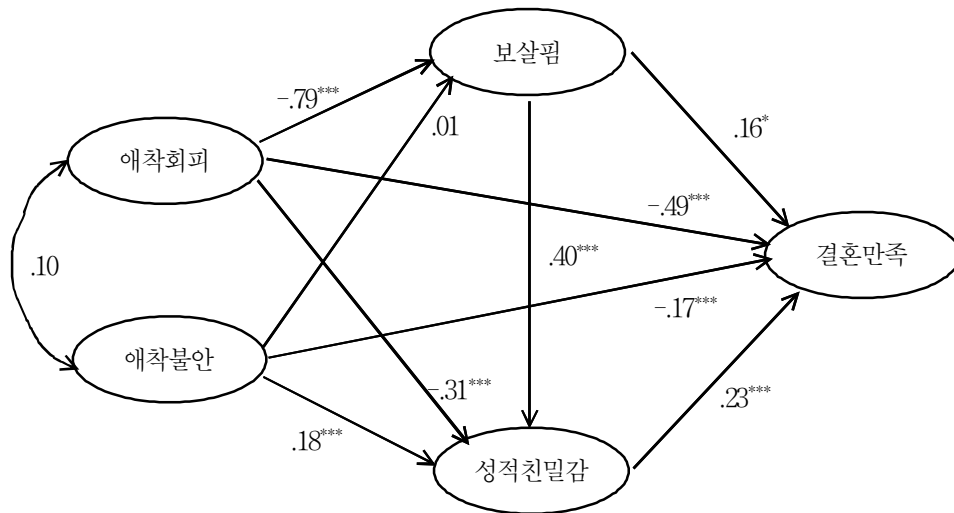


그림2. 부분 매개모형

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분 매개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보살핌이 낮았고,  $\beta = -.79, p < .001$ , 결혼만족이 낮았으며,  $\beta = -.49, p < .001$ , 성적 친밀감이 낮았다,  $\beta = -.31, p < .001$ . 그리고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성적친밀감이 높았고,  $\beta = .18, p < .001$ , 결혼만족이 낮았으나,  $\beta = -.17, p < .001$ , 보살핌은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 = .01$ . 보살핌이 높을수록 성적 친밀감이 높았고,  $\beta = .40, p < .001$ , 결혼만족이 높았다,  $\beta = .16, p < .05$ . 성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았다,  $\beta = .23, p < .001$ .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보살핌의 변량의 63%를 설명하였다.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보살핌은 성적 친밀감의 변량의 47%를 설명하였다. 애착회피, 애착불안, 보살핌, 성적 친밀감은 결혼만족의 변량 중 66%를 설명하였다.

위에서 검증한 완전 매개모형은 부분 매개모형에 포함된다(nested). 따라서 적합도와 간명성(parsimony)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완전 매개모형

과 부분 매개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두 모형 간의  $\chi^2$  차이 검증을 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difference (2,  $N=469$ ) = 58.82,  $p < .001$ . 그리고 완전매개 모형의 TLI, CFI, RMSEA가 부분 매개모형 보다 더 나빠졌다. 이는 부분 매개모형이 완전 매개모형보다 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모형의 검증

완전 매개모형보다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 매개모형의 경로 중 0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애착불안에서 보살핌 간의 경로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이 수정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정모형은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  $\chi^2$  (161,  $N = 469$ ) = 554.19,  $p < .001$ , CFI = .94, TLI = .95, RMSEA = .072. 전체 사례수가 큰 것을 고려할

표 3. 완전매개 및 부분매개 모형 적합도 지수와 모형 비교

모델	$\chi^2$	df	모델비교	$\Delta \chi^2$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1. 완전매개모형	612.95	162			.93	.94	.077(.071-.084)
2. 부분매개모형	554.13	160	1 대 2	58.82**	.94	.95	.073(.066-.079)

주.  $N = 469$

\*\*  $p < .01$

표 4. 부분매개 및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모형 비교

모델	$\chi^2$	df	모델비교	$\Delta \chi^2$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1. 부분매개모형	554.13	160			.94	.95	.073(.066-.079)
2. 수정모형	554.19	161	1 대 2	.06	.94	.95	.072(.067-.081)

주.  $N = 469$

때, 표집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 TLI, RMSEA는 전반적으로 이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분 매개모형과 최종 수정모형 간의  $\chi^2$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하지 않아,  $\chi^2$  difference (1, N =469) = .06 보다 간명한 모형인 수정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최종 수정된 부분매개 모형을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그 유의도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애착회피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애착회피가 심할수록 결혼만족이 낮았다,  $\beta = -.49, p < .001$ . 이는 개인의 애착회피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불만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애착불안 역시 심할수록 결혼만족이 낮았다,  $\beta = -.17, p < .001$ . 애착회피보다는 적지만 결혼만족에 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불만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애착회피는 보살핌 수준에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beta = -.79, p < .001$ , 보살핌은 다시 결혼만족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beta = .16, p < .05$ , 결국 애착회피는 보살핌을 통하여 결혼만족에 간접효과를 보였다,  $\beta = -.12, p < .05$ . 또

한 애착회피는 성적 친밀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beta = -.31, p < .001$ , 이는 다시 결혼만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beta = .23, p < .001$ , 결국 애착회피는 성적친밀감에 영향을 주어 결혼만족에 간접효과를 보였다,  $\beta = -.07, p < .01$ . 그리고 애착회피는 보살핌 수준에 부적관계를 보였고,  $\beta = -.79, p < .001$ , 보살핌은 성적 친밀감에 정적관계를 갖고,  $\beta = .40, p < .001$ , 이는 다시 결혼만족에 정적 관계를 보여,  $\beta = .23, p < .001$ , 결국 애착회피는 보살핌과 성적친밀감을 통하여 결혼만족에 간접효과를 보였다,  $\beta = -.07, p < .01$ .

애착불안은 결혼만족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었지만, 보살핌수준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애착불안은 성적 친밀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beta = .18, p < .001$ , 이는 다시 결혼만족과 정적인 관계가 있어,  $\beta = .23, p < .001$ , 결국 애착 불안은 성적 친밀감을 통하여 결혼만족에 간접효과를 보였다,  $\beta = .04, p < .01$ .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애착회피는 보살핌의 변량의 63%를 설명하였고,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보살핌은 성친밀감의 변량의 47%를, 애착회피, 애착불안, 보살핌, 성친밀감은 결혼만족의 변량의 66%를 설명하였다.

표 5.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도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애착회피	→	결혼만족	-.49***	-
애착불안	→	결혼만족	-.17***	-
애착회피	→보살핌→	결혼만족		-.79×.16= -.12*
애착회피	→성적친밀감→	결혼만족		-.31×.23= -.07**
애착회피	→보살핌→성적친밀감→	결혼만족		-.79×.40×.23= -.07**
애착불안	→성적친밀감→	결혼만족		.18×.23= .04**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애착 이론적 관점에서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보살핌과 성적친밀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 결과는 애착, 보살핌, 성적 요소의 최적의 기능이 안정적이고 상호 만족스런 애정적인 유대감을 높이는 반면 이러한 체계들의 역기능이 관계의 긴장이나 갈등, 불만족에 기여할 것이라는 Hazan과 Shaver(1994)의 성인 유대관계 모델(adult pair-bond relationships model)이론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는 애착, 보살핌, 성(sexuality)을 통합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들(Farrugia & Hohaus, 1998; Hohaus, Feeney, & Noller, 1998; Jacobson, 2003)과 일치하는 것으로 부부와 같은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관계 안에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보살핌 행동과 성생활이 관심과 보호, 지지, 수용, 인정 등 애착관련 욕구의 표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인애착의 결혼만족에 대한 직접효과에서는 애착회피나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결혼에 불만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성인애착 관점에서 연인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김광은, 2005; 김영일, 2006; 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Kirkpatrick & Davis, 1994; Simpson, 1990)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애착회피와 결혼만족의 밀접한 관계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보편적이라 할 수 있

는 애착 기능인 근접성과 지지추구의 일차적인 애착전략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좌절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애착관련 욕구의 활성화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해버리거나 억압하는 이차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obak & Hazan, 1991). Bartholomew(1990)에 따르면 배우자의 회피적 행동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이는 결국 결혼 불만족의 주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애착불안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애착대상이 정당하거나 충분히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몰두함으로써 질투와 집착으로 인한 극단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이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오히려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방해를 받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Jacobson, 2003).

성인애착(회피/불안)에서 결혼만족으로 이어지는 경로분석 결과에서 애착회피는 보살핌을 통하여 결혼만족에 간접효과를 보였다. 즉,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적절하고 반응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보살핌을 잘 제공하지 못할 때 결혼만족 역시 낮았다. 이러한 경로 구조는 애착이론과 선행연구(Simpson et al., 1992)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회피적인 사람은 자신의 정서조절 전략으로서 상대방이 보이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고통을 무시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애착 체계 활성화를 억압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배우자의 필요나 요구에 적절

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나 동기, 기술, 자원이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애착경험을 통해 보살핌을 배우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데 대한 신념이나 전략을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이다(Kunce & Shaver, 1994; George & Solomon, 1999). 이러한 작동모델은 배우자와의 상호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보살핌 행동 자체를 외면함으로써 배우자의 불만과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자신의 결혼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Collins & Feeney, 2000; Feeney, 1996).

본 연구 결과 애착불안이 기대와 달리 보살핌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애착불안이 갖는 특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즉, 사회적 승인이나 인정에 민감하고 과도하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애착 불안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상호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Jacobson, 2003). 즉,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보살핌 행동을 통해 자신의 애착욕구를 충족하거나 표현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을 많이 지지하지만, 상대방의 욕구와 필요와는 무관한 일방적인 보살핌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살핌 변인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의 심리적 도구적 자원과 기술, 그리고 동기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려움을 강력하게 표현하면 보살핌 행동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방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애착체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애착체계 활성화 정도와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Collins

& Feeney, 2000; Kunce & Shaver, 1994) 상호관계적 맥락을 좀 더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에 애착회피는 성적친밀감을 통하여 결혼만족에 부적인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은 성과 감정을 분리하거나 혼외의 관계를 많이 갖는다는 연구들(Brennan, Clark, & Shaver, 1998; Brennan & Shaver, 1995; Schachner & Shaver, 2004; Feeney & Noller, 2004)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Schachner 와 Shaver(2004)는 애착차원과 성행동 동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애착회피는 성별에 관계없이 파트너와의 정서적 관계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친밀한 감정이 수반되지 않는 성관계는 성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적 불만족과 심리적 상처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성기능 장애나 성적 강요, 부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부부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결혼관계에서의 불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시사된다. 애착불안은 예상과 달리 성적 친밀감을 통해 결혼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실제적인 의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들(Collins & Read, 1990; Davis et al., 2004; Feeney & Noller, 2004; Hazan & Shaver, 1987)에서 애착불안이 높으면 애착안정이나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열정적인 사랑과 성적 매력을 추구한다는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거부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기

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동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성적 친밀감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부관계에 어느 정도는 만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애착불안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낮고 승인, 수용에 대한 강한 욕구 때문에 자신의 욕구나 선호를 억압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는 경향으로 인하여 성병이나 계획하지 않은 임신 등 고위험 성행동에 노출되기 쉽다. 이는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파트너로부터 거절당하거나 거부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하지 못한 성적 친밀감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경우 성적친밀감은 성행동과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행동은 애착관련 욕구와 유사한 근접성과 친밀감을 추구하며 안심과 승인을 얻는 심리적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신체와 정신을 분리시키어 성적 능력만을 강조하며 성기능을 생리적 신체적 현상으로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 부부가 겪는 다양한 성적 어려움과 성문제에 대해 애착관계 등 많은 다른 심리적 근원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밀접한 관계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변인 모두가 근접성을 추구하고 인정이나 보호 또는 친밀감을 추구하는 애착 관련 욕구를 시도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Davis et al., 2004; Shaver et al., 1988)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부부나 연인들이 그들의 사랑과 연약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존중하면서 정서적 교감과 보살핌을 주고받을 때 친밀감과 애정 그리고 믿음이 생긴다(장춘미, 2001; Collins et al., 2007). 그러므로 관심과 정서적 지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보살핌 제공이 기반이 되어 성적 친밀감이 증진됨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한국 부부의 성생활이 애정공동체의 모습으로 직접적인 성교 외에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등 다른 친밀한 활동들로 성생활의 의미와 범위가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연구(서선영, 2006)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결혼만족에 대한 간접효과보다 애착회피가 결혼만족에 대하여 갖는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온 연구 결과를 통해 애착회피가 결혼만족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우자의 사려 깊은 보살핌과 애정 어린 성적 친밀감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발달과 유지 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보살핌이나 성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상호 호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안전 기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율성을 격려하고 필요할 때 안식처를 제공해줌으로써 의존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Feeney & Collins, 2001). 특히 애착회피나 애착불안과 같은 불안정한 애착은 긍정적인 역할모델의 기회를 갖지 못해 보살핌행동과 성적 친밀감의 핵심적인 동기가 되는 관계 안에서의 친밀감, 헌신, 신뢰 등을 발달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주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부부간의 성적 불일치로 인한 성기능의 장애, 성적 강요 등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성적 문제를 심리치료 장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은 특정 지역 거주 30~40대에 집중되고 학력도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갖는 대상으로 연구하여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남녀라는 개별적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 효과나 부부간의 상호 역동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부부만족도란 개인의 고유한 속성이기보다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애착수준이나, 보살핌, 성적 태도에 따라 개인의 결혼만족도가 영향을 받는 상대방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부부의 통합적인 애착 행동시스템의 역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만족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애착, 보살핌, 성을 가정하였으나, 모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 좀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애착과 보살핌, 성적

요소의 상호작용과 부부의 적응관계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살핌 척도와 성적친밀감 척도는 다른 문화권에서 제작된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이 척도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살핌척도의 경우는 타당도 검증 결과 적절치 않은 일부 문항을 제외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망된다.

## 참 고 문 헌

- 권정혜 (2000).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697-712.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 논문집, 35-51.
- 김광은 (2005).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김영일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조절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 경 (2002). 우울한 중년여성의 부부관계 및 의사소통. 여성건강, 3(2), 19-32.
- 박경순 (1997). 결혼 갈등과 우울감에 대한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선영 (2006). 한국 부부들의 성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13-330.

-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 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조지은 (2006).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통계청 (2007). 인구, 가구/ 주요 이혼력 지표. www.nso.go.kr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rg, A. M. (2000).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Passionate marriage couple enrichment weekend.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h. D.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664-678.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A. Simpson & W. A.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Y: Guilford Pres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Carm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 401-416.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53-1073.
- Collins, N. L., Feeney, B. C., Fork, M. B., Guichard, A. C., Jaremka, L. M., & Kane, H. S. (2007). Feeling supported and feeling satisfied: How one partner's attachment style predicts the other partner's relationship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4), 535-555.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s. In G. R. Pierce, B. R. Sarason, & I. G. Sarason (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p. 173-194). New York: Plenum Press.
- Davis, D. Shaver, P., & Vernon, M. (2004). Attachment Style and Subjective Motivations for Sex. *PSPB*, 30(8), 1076-1090.
- Farrugia, C. E., & Hohaus, L. (1998). *Conceptualising the Pair-Bond: Attachment, Caregiving, and Sexuality and predictors of Intimacy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Changing families. challenging futures 6th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Conference Melbourne 25-27 November 1998.
- Feeney, J. A.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across the life cycle of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 333-348.
- Feeney, J. A.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3, 401-416.
- Feeney, J. A. (1999). Adult attachment, emotional



-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6, 169-185.
- Feeney, B. C. & Collins, N. L. (2001). Predictors of Caregiving in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6), 972-994.
- Feeney, J. A., & Noller, P. (2004). Attachment and sexuality in close relationships. In J. H. Harvey, A. Wenzel, & S. Sprecher (Eds), *Handbook of Sexuality in Close Relationships* (pp. 183-201). Mahwah, NJ: Lawrence Erlbaum.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32-154.
- Fuller, T. L., & Fincham, F. D. (1995). Attachment style in married couples: Relation to current marital functioning, stability over time, and method of assessment. *Personal Relationships*, 2, 17-34.
- George, C., & Solomon, J. (1999). Attachment and caregiving: The caregiving behavioral system.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649-670). New York: Guilford Press.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azan, C., & Shaver, P. R.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1-22.
- Hohaus, L. H., Feeney, J., & Noller, P. (1998).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 study in progress. Changing families. challenging futures* 6th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Conference Melbourne 25-27 November 1998.
- Jacobson, S. M. (2003). *The attachment, Caregiving, and Sexual systems Relationship to Conflict Communication in Adult Pair- Bond Relationships*.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octor. of Philosophy (Counseling Psychology).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Kotler, T. (1986). Security and autonomy within marriage. *Human Relations*, 38, 299-321.
- Kunce, L. J., & Shaver, P. R. (1994).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caregiv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5, 205-237.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 239-266.
- Massey, R. F. (1999). *The Assessment of sexual intimacy: A validity study*, The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Doctor of Philosophy.
- Meyers, S. A., & Landsberger, S. A. (2002).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between adult

- attachment style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9, 159-172.
- Mikulincer, M. (2006). Attachment, Caregiving, and Sex within Romantic Relationships: A Behavioral Systems Perspective. In M. Mikulincer & G. S., Goodman(Eds.), *Dynamics of Romantic Love: Attachment, Caregiving, and Sex* (pp.149-189). New York: Guilford Press.
- Pasch, L. A., & Bradbury, T. N. (1998). Social support,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marital dysfun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219-230.
- Schnarch, D. M. (1997). Passionate marriage: How couples behave in bed is a remarkably authentic expression of their emotional connection—or lack of it. *Family Therapy Networker*, 21(5), 42-49.
- Schachner, D. A., & Shaver, P. R. (2004). Attachment dimension and sexual motives. *Personal Relationships*, 11, 179-195.
- Shaver, P. R., & Hazan, C. (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73-501.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 Shaver, P.,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The integration of three behavioural systems. In R. J. Sternberg, & M. Barnes(Eds.), *Anatomy of love*, 68-99.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impson, J. A.,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34-446.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원고접수일: 2008년 7월 18일

게재결정일: 2008년 9월 5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3, 671 - 689

#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aregiving and Sexual Intimacy Variables as the Mediating Effect

HeeSook Lee      Kyung Park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vening variables for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by using caregiving and sexual intimacy variables as mediators based on adult pair bonding relationship model of Shaver & Hazan. The Subjects for the this study were 469 married people(242 men and 227 women) in marriage who are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ts vicinity. Each participant completed a package of measures;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ECRS), Marital Satisfaction Scale(GDS), Caregiving Questionnaire, and Sexual Intimacy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using SPSS 11.5 program and AMOS 5.0.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caregiving, sexual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Second, the higher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level caused the lower marital satisfaction. Thir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 indicated that the attachment avoidance in individuals is negatively related to caregiving, sexual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attachment anxiety in individuals is positively related to sexual intimac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in caregiving variable. Fourth, the caregiving variabl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exual intimacy variable. Fifth, the indirect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of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showed relatively lower than the direct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In conclusion, attachment avoidance was the strong variable which predicts marital satisfaction negatively. Last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recommended.

*Keywords: marital satisfaction, adult attachment, caregiving, sexuality, sexual intimacy*